

#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류세양<sup>1</sup>, 김남영<sup>2\*</sup>

<sup>1</sup>목포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Seang Ryu<sup>1</sup>, Nam Yo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는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학과 4학년 128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회귀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방법을 따랐다. 본연구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주관적 건강상태( $F=9.08$ ,  $p<.001$ ), 대인관계( $F=16.81$ ,  $p<.001$ ), 경제상태( $F=5.13$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r=.520$ ,  $p<.001$ ) 및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r=.535$ ,  $p<.001$ )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본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Z=3.58$ ,  $p<.001$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효능감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onfirm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The online study subjects included 128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and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5 to June 8, 2020.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appli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followed the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ubject's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subjective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conomic statu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Lastly,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ur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education strategies that sufficiently reflect opportunities to improve self-efficacy. Furthermore, continuous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th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to enhanc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Nam Young Kim(Jungwon Univ.)

email: aqua29@jwu.ac.kr

Received August 9,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Revised September 26,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의료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 의료 전문인인 간호사들의 역할은 점점 확장되는 동시에 간호업무는 더욱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1]. 이렇듯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간호직이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예비대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2]. 간호직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관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동안 간호전문직관을 잘 정립하게 되면, 간호사 활동을 하는 시기에도 지속해서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스스로 전문직 발전을 위해 본인 업무를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호사 스스로 본인의 직업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갖게 되는 동시에 질 높은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말한다[3].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진행되는 전문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함양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4].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학부 과정 동안 형성한다면 자기 자신과 간호사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간호사를 이직하지 않고 간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5]. 반면 복잡한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되지 않은 간호사들은 간호업무가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이라 느끼면서 간호직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6].

이렇듯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서 신입생 시기부터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6]. 즉, 간호전문직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에 영향을 주며,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임상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른 의료인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간호전문직관을 쌓을 수 있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학교

와 다른 낯선 환경과 실습 중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며, 대상자와 대인관계에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8]. 이렇게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9-12].

즉,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수행능력을 배울 수 있는 임상실습 기간에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실습으로 효율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두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10,11,14]. 그러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 대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임상실습 역시 비대면 대체 실습으로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다[15],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느끼는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간호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행위를 성공으로 이끄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1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8]에서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본인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믿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19].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임상실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다[20].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지만, 두 변수의 관

계 이면에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가 여러 문헌을 통해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변수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이 있다[2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관계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4학년 재학생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인터넷 설문조

사에 응답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간호학전공 이론 교과과정과 임상실습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 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을 연구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4학년 재학생으로 제한하였고 간호학과 재학생이어도 4학년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G\*power 3.1을 이용해서 표본의 크기를 계산했고, 중간 효과 크기( $f$ )=.15, 유의수준( $\alpha$ )=.05, 효검정력( $1-\beta$ )=.95, 예측변수 2개로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07이었다. 본 연구에서 128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함되어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수집하였다. 대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참여 방법 그리고 간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모집함에 대해 공지하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과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응답을 사전에 명시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문 참여시 URL 주소가 링크되도록 설정하였고 중복응답 제출을 막기 위해 IP당 1개의 응답 제출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약 5분-10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 종료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134부가 회수되었고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이 아닌 설문지 6부를 제외하여 12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22]이 개발한 도구를 강경숙과 고영숙[2]이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해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0.8 이상인 12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과 '매우 그렇다'의 5점을 표기하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강경숙과 고영숙[2]에서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이었다.

### 2.3.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조결자와 강현숙[23]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 도구를 이순희 등[24]이 수정·보완 후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 6개 하위영역(실습교과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

만족도 3분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표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김영은[25]이 Lent 등[26]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 도구에서 10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과 '매우 그렇다'의 5점을 표기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Lent 등[26]에서 Chronbach's  $\alpha = .91$ 이었고, 김영은[25]에서 Chronbach's  $\alpha = .85$ 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구했고,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만족,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 회귀분석은 Baron과 Kenny[27]에 따랐고,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되어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귀분석이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두 번째 회귀분석에 비해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82%를 구성했다. 대상자의 54.7%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로, 73.4%는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좋다'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주거 형태의 52.3%가 자가 거주하였고 대상자의 약 80%는 학점 3.5-4.0과 3.0-3.5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이 유리해서로 응답한 대상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8)

Variable	Category	N (%)
Gender	Female	105 (82.0)
	Male	23 (18.0)
Religion	No	74 (57.8)
	Yes	54 (42.2)
Health status	Good <sup>a</sup>	70 (54.7)
	Moderate <sup>b</sup>	45 (35.2)
	Bad <sup>c</sup>	13 (10.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94 (73.4)
	Moderate <sup>b</sup>	30 (23.4)
	Bad <sup>c</sup>	4 (3.1)
Economic status	Good <sup>a</sup>	53 (41.4)
	Moderate <sup>b</sup>	54 (42.2)
	Bad <sup>c</sup>	21 (16.4)
Residence	With family	67 (52.3)
	Dormitory	16 (12.5)
	Live alone	45 (35.2)
School record	> 4.0	13 (10.2)
	3.5 - 4.0	59 (46.1)
	3.0 - 3.5	42 (32.8)
	2.5 - 3.0	14 (10.9)
Entering motivation	Professional	19 (14.8)
	In aptitude	32 (25.0)
	Employment	46 (35.9)
	To the grade	6 (4.7)
	Recommandaton	25 (19.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주관적 건강 상태(F=9.08,  $p < .001$ ), 대인관계(F=16.81,  $p < .001$ ), 경제 상태(F=5.13,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Variable	Category	Nursing Professionalism M±SD	F/t	p (scheffe)
Gender	Female	44.46±6.47	0.994	.322
	Male	43.00±5.86		
Religion	No	44.41±6.17	-0.436	.664
	Yes	43.91±6.68		
Health status	Good <sup>a</sup>	46.09±5.14	9.076	<.001 (a>b, a>c)
	Moderate <sup>b</sup>	42.62±6.48		
	Bad <sup>c</sup>	39.46±8.3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45.88±5.53	16.806	<.001 (a>b, a>c)
	Moderate <sup>b</sup>	40.10±6.21		
	Bad <sup>c</sup>	35.25±5.74		
Economic status	Good <sup>a</sup>	45.85±5.90	5.134	.007 (a>c)
	Moderate <sup>b</sup>	43.89±6.13		
	Bad <sup>c</sup>	40.81±6.90		
Residence	With family	44.81±6.48	1.695	.188
	Dormitory	41.56±6.63		
	Live alone	44.22±6.37		
School record	> 4.0	42.31±7.61	2.069	.108
	3.5 - 4.0	45.27±5.40		
	3.0 - 3.5	44.29±6.07		
	2.5 - 3.0	41.14±8.80		
Entering motivation	Professional	46.58±7.229	1.572	.186
	In aptitude	44.81±5.806		
	Employment	44.04±6.494		
	To the grade Recommendation	40.67±6.743		
		42.72±5.727		

### 3.2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104.98점(±16.18), 자기효능감은 40.96점(±6.53), 간호전문직관은 44.20점(±6.37) 이었다(Table 3).

Table 3. The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N=128)

Variables	M±SD	Rang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04.98±16.18	48-150
Subjects of practice	11.18±2.19	5-15
Content of practice	19.98±3.24	13-29
Instruction of practice	28.29±6.41	9-45
Environment of practice	25.16±4.72	7-35
Time of practice	9.61±3.18	3-15
Evaluation of practice	10.75±2.03	5-15
Self-efficacy	40.96±6.53	23-55
Nursing Professionalism	44.20±6.36	30-60

### 3.3 간호전문직관과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r=.420,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520, p<.001) 및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r=.535,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N=128)

Variabl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	.420(<.001)	.520(<.001)
Self-efficacy		1	.535(<.001)
Nursing Professionalism			1

### 3.4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Shapiro-Wilk test 결과, 임상실습만족도(Z(128)=.989, p=.391), 자기효능감(Z(128)=.986, p=.196), 간호전문직관(Z(128)=.986, p=.235)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매개회귀 분석의 각 단계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1.763-2.157이었고, 공차는 .823-1.000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00-1.215이었다.

독립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β=.420, p<.001),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520, p<.001).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β=.384, p<.001), 임상실습만족도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8)

Variables	B	SE	β	t(p)	R <sup>2</sup>	F(p)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Self-efficacy	.170	.033	.420	5.201 (<.001)	.177	27.049 (<.001)
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Nursing professionalism	.205	.030	.520	6.840 (<.001)	.271	46.792 (<.001)
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 Nursing professionalism	.141	.030	.359	4.670 (<.001)	.392	40.347 (<.001)
	.374	.075	.384	4.699 (<.001)		

Sobel test: Z=3.58 (p<.001)

( $\beta=.359, p<.001$ ) 단독 투입 때보다 영향력이 감소하여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obel test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3.58, p<.001$ )(Table 5).

#### 4. 논의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동안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갖추게 된다면 간호직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간호사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향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3.68점(만점 5점으로 환산)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81점을 보고한 강경숙과 고영숙[2] 연구 결과보다는 조금 낮았으나 중간이상 점수의 간호전문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가 전문직이라는 개인의 신념이며, 간호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이고 질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28].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중간이상 점수를 보였다라는 것은 간호대학생 스스로 간호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8].

특히,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건강 상태가 좋은 학생,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 경제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황은희와 신수진[1]의 연구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들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아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이기에 자신의 건강관리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 또한 서영숙 등[14]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

도록 학생건강교육이 필요하며, 대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학생 때부터 사회봉사를 증진하기 위해 봉사동아리 활동이나 나눔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간호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대[29].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학년이나 임상실습 시기, 다양한 전공교과목 학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12],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변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39점(만점 5점으로 환산)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3.64점을 보고한 조경숙[10]의 연구결과와 이정숙 등[19]의 3.78보다 낮았으나 임상실습을 600시간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경민과 조은주[11]의 3.48점과는 유사하였다. 조경숙[1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는데 본연구대상자의 경우 자료가 수집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은 비대면 이론수업과 대체 임상실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임상실습만족도가 선행연구 결과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기간에 주로 간호사 활동을 관찰해 배우고 있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인식과 감정을 갖도록 임상실습 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임상실습만족도는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0].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3.72점(만점 5점으로 환산)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3.28점을 보고한 강경숙과 고영숙[2]의 연구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간호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3.80점을 보고한 선행연구[31]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과, 중도 포기, 직장 이직 등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데[31],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평균 이상의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간호대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해가 깊고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스스로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된다[18]. 또한 자기효능감은 대학과정 동안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1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걸치도록 로드맵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조경숙 [10]의 연구와 임경민과 조은주[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결과이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한 강경숙과 고영숙 [2], 송정희와 김혜진[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에서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는 실습을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 학기 실습 만족도를 평가할 때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술된 문항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해지고,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마주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사명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18].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정숙 등[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정체성을 확인하고, 간호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간호대학생이 자신 행동이 성공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가 개입했을 때 더 강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중재만을 투여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임상실습만족감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학습한 이론 지식을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동과 병실에서 실질적인 실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권리보호와 바쁜 임상 상황 등을 이유로 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 간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대부분의 임상실습은 관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간호 수행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실습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자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마련하고 이를 임상실습 현장 지도자와 협력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연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임상실습만족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범유행 발생 이전에 시행된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만족과 간호전문직관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기회가 충분히 반영된 임상실습 교육전략을 개발하고 임상 실습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임상실습 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대학에서 시행한 비대면 임상실습 대체 방

안을 조사하고 이러한 임상실습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E. Hwang, S.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No.1, pp.97-108, 2017.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7.31.1.97>
- [2] K. S. Kang, Y. S. Ko,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1, No.2, pp.179-189, 2016.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16.11.2.179>
- [3] D. 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2, No.2, pp.201-204, 2000.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 [4]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 [5]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5, pp.349-35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5.349>
- [6]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536-544,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536>
- [7]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2, pp.333-348, 2001.
- [8]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6-106, 2006.
- [9] S. Hong, M. J. Park,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369-377, 2014.
- [10] K. S. Cho,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7, No.2, pp.142-152,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2.142>
- [11]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56-566,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56>
- [12] Y. J. LI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649-664,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8.649>
- [13]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6-225, 2011.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1.17.2.216>
- [14] C. Y. Jeong, Y. S. Seo, B. H. Kang, E. H. Cho,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7, No.1, pp.1248-1256, 2019.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19.06.30.1248>
- [15] S. Y. Lee, S. Yun, J. Park, J. Lee, N. Kim, et al., "Influencing Factors the Knowledge and Fear of COVID-19 on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3, pp.407-416, 2022.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2.39.3.407>
- [16] A.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17] W. G. Kim, E. T.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17, No.2, pp.66-77, 2012.
- [18] J. H. Song, H. J. Kim,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9, pp.102-110,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9.102>
- [19] J. S. Lee, Y. O. Lee, H. J. Bea,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al and educ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4, No.4, pp.359-365, 2019.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9.44.4.359>
- [20]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0, No.1, pp.24-37, 2015.

[21] Y. S. Seo,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4, pp.1147-1168, 2010.

[22] Y. J. Yoon, Y. M. Geo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23] K. J. Cho, H. S. Kang,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24]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25] Y. E. Kim, *A Path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Factors Affecting Major Choice Persis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cience & Technology Field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35, 2009.

[26] R. W. Lent, S. D. Brown, H. Sheu, J. Schmidt, B. R. Brenner, et al.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2, No.3, pp.429-442,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2.1.84>

[2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28] E. J. Yeun, Y. M. Kwon,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3, pp.285-292, 2007.

[29] Y. H. Kim, Y. C. Kwon,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215-224,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15>

[30]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 pp.311-321, 2013.  
DOI: <https://doi.org/10.5392/KCA.2013.13.01.311>

[31] I. H. Kim, Y. E. Kim, “Major related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ype of major

sele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3, pp.53-63,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3.53>

류 세 앙(Seang Ryu)

[정회원]



- 199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05년 3월 ~ 2012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중환자간호, 노인간호, 근거기반간호

김 남 영(Nam Young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석사)
- 2005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박사)
- 2015년 3월 ~ 2019년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체계적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중환자간호, 간호교육